

# 제6회 충북양봉포럼 및 한마음 축제

## “하나로 똘똘 뭉친 한마음 축제”

지난 10월 6일 충북 제천시 종합운동장 야외음악당에서 제6회 충북양봉포럼 및 한마음 축제가 성대히 치러졌다. 이번 대회는 (사)한국양봉협회 충북지회가 주최하고 제천시 분회의 주관으로 이루어 졌으며, 바쁜 가운데에도 정우택 충청북도 지사가를 비롯한 전기현 협회장, 정해운 명회 회장, 엄태연 제천시장, 박종갑 도의회 산업경제 위원장, 석영석 충북대 농업생명환경대 학장, 정정순 경제통상국장, 김정수 농정국장, 조상균 한국양봉농업조합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충북의 무려 700여명의 양봉인이 참석한 한마음 축제는 훌라후프돌리기, 지구공굴리기, 400m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등의 체육행사로 진행되었으며, 각시군 노래자랑과 경품추첨으로 그 열기가 이어졌다.

화창한 날씨에서 성대히 치러진 이번 행사는 다음해 음성군 개최를 선언하며 아쉽게 막을 내렸으며, 서근원 충북도지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충북도지회가 똘똘 뭉쳐진 화합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큰 수확으로 생각한다”며 폐회식 인사로 마무리되었다.

